창간 50 불교신문 1960년 1월1일

佛敎新聞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불기 2554년(단기 4343년) 음력 8월1일 제2654호

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총무원장 자승스님 첫 미국 순방

9월14~24일 美 뉴욕·LA 일대 방문… "한국불교 세계화·국제포교 네트워크 강화"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이 취임 후 첫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과 LA를 방문한다.

총무원장 스님과 미국 방문단은 오는 20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한국사찰음식 홍보 행사에도 참여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뉴욕과 LA에서 두 차례 현지 불자들을 위한 대법회가 봉행되며, 미국 거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 간담회도 진행된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순방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총무원장 스님의 미국 방문에 앞서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문화부장 효탄스님, 총무국장 종민스님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순방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해외교구 설립을 위한 현지 의견 수렴 △미국 불자들을 위한 대법회 봉행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홍보 등 주요일정을 소개했다. 이어 기획실장 스님은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되는 총무원장 스님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회동과 관련 △종교간 화해와 공동선 실현 △세계 위기국가의 어린이 교육사업 참여 △남북한 긴장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의 미국 순방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불교 전통문화와 한국사찰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은 우리나라의 격(格)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사찰음식의 세계화는 물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9월20일 오후5시30분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이트에서 열리는 '2010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에는 약 300여명의 미국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관계를 비롯해 △미디어 분야 △요리 및 요리 산업 분야 △불교계 △예술계 인사 등이 초청됐다. NY 뉴스 채널의 앵커인 비비안 리가 사회를 맡게 될 이날 행사에는 40여 가지의 한국사찰 음식 소개와 함께 발우공양 시연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와 관련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불교문화를 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사찰음식이라고 본다"면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한국불교가 이제는 종단 내부의 문제에서 거시적으로 눈을 돌려 해외로 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미국 순방이 한국불교의 수행법과 자비심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미국 순방은 제33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 포교 네트워크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주요 과제로 선정된 '사찰 음식 대중화'와 '해외 특별교구 설립'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순방은 단순히 불교계 내부의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UN, 유네스코, 세계종교지도자 등과의 유대를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교육·구호활동 참여,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 마련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무원장 스님의 미국 방문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해외특별교구 종책 특보 무애스님,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스님,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총무국장 종민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조스님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스님 미국 순방 주요 일정

장 소	일 정
뉴욕 맨해튼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뉴욕 UN본부	반기문 사무총장 회동 위기국가 어린이 교육사업 참여 논의 남북 긴장 해소 방안 교환
뉴욕·LA 일대	해외교구설립 의견 수렴 미국불자들 위한 대법회 템플스테이 홍보

반기문 총장 만나 '위기국가 아동구호' 논의

"한국불교 수행법과 자비심 알리는 출발점"

광풍에 쓰러진 사찰목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몰고온 강풍으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유리가 깨지는 등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난 2일과 3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태안과 서산 일대로 긴급 구호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산 성왕사를 찾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사찰 진입로와 경내 곳곳에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서산=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자연공원법 규제 풀릴 가능성 높아졌다

주호영·강창일 의원 등 법 개정안 제출

원담스님 "수행환경 개선"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3명은 지난 8월31일 국회에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이 상임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1967년 제정된 공원법(1980년 자연공원법으로 대체)으로 인해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어 온 불교계의 어려움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공원법의 규제로 사찰수행환경이 큰 침해를 받아왔다"면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늦게나마 상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담스님은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종단의 요구를 수용한 자연공원정책 수립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어우러지는 선진형 자연공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은 그동안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해 왔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사찰 불사, 공원관리청의 기존 허가사항 배제, 공원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시 전통사찰 주지와의 사전 협의 진행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항목이 포함돼,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발생한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종무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불교계와의 소통 창구도 마련될 전망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지구에 포함된 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경우 국민과 불자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종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후손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종단 내 불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담스님은 "국민들에게 40여 년간 불교계가 감내해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미(니)계 행자 등록 시작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40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 행자 등록을 받는다. 등록대상은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이며, 고졸 이상 학력자(단 18세 미만인 경우 중졸 이상)여야 한다. 등록일은 오는 17일까지며 행자 등록신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원조회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케냐 엔요뇨르 초등학교 기공식 현장 6면

교계 복지관 한가위 행사 풍성 14면

社告 북한 수재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식량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신의주 등지에 사상 2번째 큰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북녘 동포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불교신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남북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자비의 손길을 북녘에 전하고자 합니다. 불자들은 물론 각계의 온정의 손길이 모아져 수해 피해를 입은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번호(남북교류기금)**
- 계 좌 : 농협 301-0029-6115-71
-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문의전화**
-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 02-737-9595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02-720-0531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